

# 1950년대 잡지 창간호에 나타난 반공담론

The Discourse of Anti-Communism in the First Issue of 1950s Magazines

임수정 (Im, Su-Jeong)\*

이혜은 (Lee, Hye-Eun)\*\*

## ◁ 목 차 ▷

1. 서론	2.2 1950년대 잡지 출판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950년대 잡지에 담긴 반공담론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1 판권지 속에 담긴 반공 요소
1.3 선행연구	3.2 창간사 속에 담긴 반공 요소
2. 1950년대와 잡지 출판	4. 결 론
2.1 1950년대 정기간행물법	<참고문헌>

## < 초 록 >

1950년대는 6·25 전쟁을 겪으며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국시로 삼으며 사회·문화 전반에 반공의 기류를 형성하고 반공사상을 주입시키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매체인 잡지에서의 반공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50년대의 잡지 간행의 상황을 고찰하고 특히 1950년대 잡지의 창간호 380종을 대상으로 판권지와 창간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당시 출판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던 ‘우리의 맹세’가 수록된 잡지는 74종에 불과하였으며 창간사에서 반공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 잡지는 13종이었다. 이를 통하여 잡지도 기존 반공 관련 예술장르의 경향과 유사하게 반공에 대한 국가적 요구 수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정부의 압력에 항거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했고 둘째, 대중들과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공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지만 국내에는 이미 민주주의적 환경이 싹트고 있었고 대중들의 관심 역시 반공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要語: 근현대, 잡지, 창간호, 1950년대, 반공담론, 창간사, 우리의 맹세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sj1114983@gmail.com)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elee@sookmyung.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7년 6월 10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6일

<ABSTRACT>

In 1950s temporary division of Korea became permanent following the Korean War,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 ideology of anti-communism to infuse anti-communist sentiments across social and cultural spectrum.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course of anti-communism in 1950s magazines which were accessible media to a general audience. For this, the situation of publishing magazines in this period was examined, and copyright papers together with editorials of first issues of 380 magazines launched in 1950s were analyzed. Analysis shows that only 74 magazines contained “Our Oaths” fixed by the Publication Registration Law at that time and there are 13 magazines including anti-communism texts. It is confirmed that magazine publishers were reluctant to accommodate the requirement of the government on the anti-communism. The first reason is that there existed the freedom of press against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at that time. Second, the government’s demand was not widely accepted by the public and the intellectual. In conclusion, it is understood that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heighten the anti-communist sentiment in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1950s, while anti-communism was far from public interest with the sprouting democracy in the society.

Key words: modern times, magazine, first issue, 1950s, discourse of anti-communism, editorials of first issues, Our Oath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잡지(雜誌, magazine)란 ‘신문과 구분되는 것으로 일련번호보다는 날짜로 식별되며 독립적으로 각호마다 면수가 매겨져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대중적인 독서를 위한 것으로서 여러 저자에 의해 여러 주제의 기사를 다룬 정기간행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sup>1)</sup> 잡지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들어온 근대적 산물이나 그 내용에서는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담고 있었기에 우리 문화와 역사의 기록이었다. 잡지는 각 시대의 모습과 지식을 담고 있었으며 나아가 언론의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 신문 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보급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sup>2)</sup> 잡지가 문화 활동 및 언론의 장으로써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1896년에 『친목회회보』와 『대조선독립협회회보』가 근대 잡지의 시작<sup>3)</sup>을 알린 이후 우리나라의 잡지문화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기복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총 18,563종으로 월 1회 이하의 정기간행물<sup>4)</sup> 즉, 잡지(雜誌, magazine)는 총 11,410종에 이르고 있다.<sup>5)</sup>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발전된 잡지 문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고 잡지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잡지의 역사 중 1950년대는 주목할 만한 시기이다. 1950년대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두어 전 국민과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반공주의 정서는 극에 달했고 반공 교육 및 선전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sup>6)</sup>

1)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 275.

2)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59년 전국적으로 라디오는 314,685대(천가구당 8% 보급률), 텔레비전은 1,378대에 불과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통계연감 [cited 2017.06.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34406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344062&conn_path=I2)

3)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문화예술분야 활용기반 구축 연구』 (서울: 수립문화재단, 2016), 21 ; 국내 잡지의 효시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위하여 편집, 발행하고, 국문으로 발행되는 잡지’로 한국인에 의해 발행된 잡지를 잡지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저서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최동호, 최유찬,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연구 1-4』 (서울: 서정시학, 2012).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정진석, 『한국잡지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4) 법률 제1463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이 법률에서 잡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잡지란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따라서 일간신문, 통신, 기타일간, 주간, 인터넷신문을 제외하였다.

5) e-나라지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cited 2017.06.0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5)

6) 김영희, “제1공화국 초기 이승만정부 공보선전활동의 성격,” 『한국어논학보』 제54권(2010. 6), 337-343.

또한 이 시기는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이 등장하고 출판문화 및 잡지사적으로 의미 있는 잡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잡지 발간의 상황을 살펴보고 잡지가 반공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1950년대 잡지 발간의 상황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파악하고 잡지 창간호의 실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계량 및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950년대 잡지 발행 상황을 조사하였다. 1950년대 잡지 창간호 목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1896년부터 1972년도까지 발간된 잡지 총 3,695종의 목록을 수록한 『한국잡지총람: 한국잡지70년사』<sup>8)</sup>의 1950년대 잡지 600종의 목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잡지총람』에는 상세한 서지사항은 수록되지 않아 국회도서관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DB를 활용하여 잡지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잡지 창간호 컬렉션으로 평가받는 가천박물관 소장 잡지 20,141종 중 1950년대 창간호 잡지 380종의 목록을 활용하였다.<sup>9)</sup>

둘째, 가천박물관 소장 1950년대 잡지 창간호 380종의 실물조사를 통하여 잡지의 주제, 판권지와 창간사의 상세 분석을 시도하였다. 창간호는 창간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판권지의 서지사항은 당시의 전반적인 출판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당시 출판등록법에 반공성향이 짙은 ‘우리의 맹세’를 기입해야 하는 독특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판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창간사는 그 출판물의 취지, 목적, 방향 등을 언급하고 있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창간사 속에 나타난 반공관련 어휘 분석을 시도하였다.

##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1950년대의 잡지에 대한 연구와 반공담론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7) 이춘실, 이혜은, 허지수, “계량정보학적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모습 - 가천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제55집(2017. 2), 48; 위 논문에 따르면, 1900년대 5종, 1910년대는 7종,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까지 각각 20, 34, 56종으로 점차 증가하고 1950년대가 되면 376종으로 잡지 발간 수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8) 한국잡지협회, 『한국 잡지 총람: 韓國雜誌70年史』 (서울: 한국잡지협회, 1973), 145-292.

9)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문화예술분야 활용기반 구축 연구』 (서울: 수림문화재단, 2016), 49-181.

이 시기의 잡지와 관련된 자료로 1957년과 1963년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간한 『출판연감』이 있으나 정기간행물 목록에 주간지와 신문 목록이 혼재되어 있고 잡지 발간 현황이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950년대 잡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잡지 연구와 출판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통사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 1950년대 잡지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잡지를 통한 사회문화현상을 고찰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주제들은 대중, 여성, 반공 등이었다.<sup>10)</sup> 한편, 출판학적 측면에서의 잡지 연구는 대부분 신문, 단행본 등 당대의 인쇄매체들과 함께 진행되거나 일제강점기에 국한되었다. 통사적인 연구로는 광복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잡지의 성격을 분석하고 출판·잡지사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거나 계량서지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sup>11)</sup>

반공담론과 관련된 연구는 교육과 예술은 반공을 선전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고 특히 문학, 연극, 영화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1950년대의 반공 교육은 도의교육(道義教育)으로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예술장르들은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 반공사상을 고취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장르인 반공극, 반공영화들은 전쟁직후 점차 양적, 질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당시에는 북한은 적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의식 때문에 반공주의가 내면화되기 어려웠고 작가들은 자기검열에 회의감을 느끼며 반공노선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12)</sup> 이러한 연유로 1955년 이후부터 점차

- 10)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3집(2007. 12), 378-416.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 『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19집(2013. 12), 83-116.  
서정우, “대중지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 『계간 언론중재』 (1986년 여름호), [cited 2017.06.05]  
[http://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13&idx=508&sub\\_idx=3800&m=read&f=&s=](http://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13&idx=508&sub_idx=3800&m=read&f=&s=)  
선안나, “1950년대 아동문학과 반공주의 - 아동잡지를 중심으로 -,” 『동악어문학』 제46집(2006. 2), 325-355.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집(2013. 6), 654-682.  
장수경, “1950년대 『학원』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계몽의 이중성,”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2009. 11), 435-452.  
정경은, “195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계몽과 수치침의 관계 고찰 - 잡지 『여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2집(2012. 9), 287-310.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제15집(2005. 8), 49-98.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집(2010. 10), 397-454.
- 11) 정진석, “잡지변천사,” 『관훈저널』 제70집(1998. 9), 51-77.  
정진석, “근현대 잡지 연구의 회고와 전망 - 개화 계몽 항일 민주화의 시련속에서,” 『열상고전연구회 학술발표회』 (서울: 열상고전연구회, 2016), 1-7.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문화예술분야 활용기반 구축 연구』 (서울: 수림문화재단, 2016), 1-229.  
이춘실, 이혜은, 허지수, “계량정보학적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모습 - 가천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제55집(2017. 2), 43-72.
- 12) 김영희, “제1공화국 초기 이승만정부 공보선전활동의 성격,” 『한국어논학보』 제54권(2010. 6), 326-348.  
김옥란, “오영진과 반공·아시아·미국 - 이승만 전기극 <청년>·<풍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2012. 8), 5-55.  
김옥선, “『전선문학』에 나타난 감정 정치,” 『인문학논총』 제25집(2011. 2), 103-129.  
김한식, “김동리 순수문학론의 세 층위 - 반공주의와 순수문학의 상동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5집(2005. 8), 11-47.  
임성규,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 비판 - 1950년대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

반공영화들은 감소하기 시작하며 반공영화를 선전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는 비판적 신문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sup>13)</sup>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동안 1950년대의 잡지 연구는 대부분 개별 잡지 또는 특정 주제에 국한되는 미시적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1950년대의 전체 잡지들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1950년대의 반공 관련 예술장르들은 생각보다 많이 제작되고 향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잡지 창간호들을 대상으로 당시 반공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는 정부가 국시를 반공으로 삼고 전 국민에게 반공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선전공세를 펼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문화 활동의 소산물인 잡지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와 문화속에 보여지는 반공담론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1950년대와 잡지 출판

### 2.1 1950년대 정기간행물법

1950년대는 6·25전쟁을 거치고 반공과 독재가 고착화되는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언론 특히 신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정기간행물법에 속한 잡지 역시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50년대는 해방이후 정부수립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법제가 구축되어가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의 경우 다양한 법률들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표 1>은 1950년대에 적용되었던 주요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법률들을 시대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의 정기간행물법 제정의 목적은 좌익세력의 통제, 언론의 통제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격에 있어서 허가제와 등록제 변천유무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함께 기입해 두었다.

구] 제32집(2008), 369-391.

조건,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조직과 반공 교육정책,” 『역사와 교육』 제22집(2016. 4), 155-190.

13) 김미현, “한국 반공 서사의 기원에 대한 연구,” 『한국영화학회』 제63집(2015. 3), 71-98;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에 제작된 반공관련 영화를 총 52여 편으로 추정하고 이 중 1954년까지는 40여 편이 제작되었으나 1955년부터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1957-1960 기간에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영미, “1950년대 개인담론의 대두와 반공극의 위상,”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2013. 12), 187-217.

이하나, “반공주의 감성기획, ‘반공영화’의 딜레마 - 1950~60년대 ‘반공영화’ 논쟁을 중심으로 -, ” 『동방학지』 제159집(2012. 9), 67.

또한, 동아일보 (1955.08.12) 『宣傳價値와 映畫藝術性/反共映畫批判의 是非/특히 『피아골』을 中心하여』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정기간행물법 변천과정<sup>14)</sup>

일자	법률	성격
1907.07.24	광무신문지법 <sup>15)</sup>	허가제
1909.02.23	출판법 <sup>16)</sup>	
1945.10.30	군정법령 제19호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 <sup>17)</sup>	등록제
1946.05.29	군정법령 제88호 「신문 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 <sup>18)</sup>	허가제
1947.03.20	군정법령 제136호 「군정법령 제88호 개정」 <sup>19)</sup>	
1947.03.26	공보부령 제1호 「정기간행물 허가정지에 관한 건」 <sup>20)</sup>	
1948.07.17	제헌헌법 <sup>21)</sup>	
1948.09.22	보도금지조항 7개 발표 <sup>22)</sup>	
1948.10	‘신문지 기타 정기간행물 법안’ 제정 시도 <sup>23)</sup>	
1949.02.15	보도지침 9개항 발표 <sup>24)</sup>	
1950.02.02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 법안’ 발의 <sup>25)</sup>	
1950.07.25	계엄사령부 특별조치 「간행물·방송·연극·영화 등에 대한 조치」 <sup>26)</sup>	
1951.07.30	‘출판물법(전문 24조 부칙 3조)’ 초안 작성 <sup>27)</sup>	
1951.11.21	‘출판물법(전문16조)’ 제정 시도 <sup>28)</sup>	
1952.04.04	광무신문지법 폐지 <sup>29)</sup>	
1955.01	출판물입시단속법 <sup>30)</sup> 발의	
1957.01	출판물단속법안 <sup>31)</sup> 발의	
1960.07.01	법률 제553호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sup>32)</sup>	등록제
1961.11.21	「외국정기간행물 국내 배포에 관한 법률안」 <sup>33)</sup>	

14) 연표에서 일반 글씨는 논의 또는 발의만 되었던 법안이며 진한 글씨는 시행되었던 법률이다.

15) 『朝鮮王朝實錄』 순종 즉위년 7월 24일; “法律第一號, 新聞紙法, 頒布.”

16) 『朝鮮王朝實錄』 순종 2년 2월 23일; “二十三日, 法律第六號, 出版法, 裁可頒布.”

17) 『미군정관보』 제19호 (1945. 10. 30).

18) 『미군정관보』 제88호 (1946. 05. 29).

19) 『미군정관보』 제136호 (1947. 03. 20).

20) 『동아일보』 (1947. 03. 28). 「刊行物 新聞雜誌에 暴風襲來」.

21) 『관보』 제1호(1948. 9. 1).

22) 『민주일보』 (1948. 09. 24). 「言論擁護를爲하여 言論協會蹶起 政府當路에 提議文通達」.

23) 『동아일보』 (1948. 10. 29). 「新聞紙法再考慮 三團體共同聲明」.

24) 국회 회의록 「제1대국회 제2회 제31차 국회본회의」 (1949년 02월 15일).

25) 『동아일보』 (1950. 02. 04). 「新聞紙法案提出 光武11年法全의 改廢」.

26) 『자료대한민국사18』 「계엄사령부, 모든 간행물의 사전검열과 방송수신기 등록 등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27)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2.

28) 『동아일보』 (1951. 11. 24). 「出版物法에 對한 異見」.

29) 『관보』 제631호(1952년 4월 4일).

30) 『동아일보』 (1955. 01. 23). 「起草完了된 出版法全文」.

31) 『경향신문』 (1957. 02. 13). 「所謂 出版物團束法案의 再蠢動」.

32) 『관보』 제2615호(1960년 7월 1일).

33) 『경향신문』 (1960. 11. 14). 「外國定期刊行物配布案議決」.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였고 제헌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 정권은 보도금지 7조항<sup>34)</sup>과 보도지침 9개항<sup>35)</sup>을 발표하여 언론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두 조항에는 공통적으로 반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도금지 7조항에서는 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보호하는 기사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도지침 9개항에서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북한괴뢰정부’라고 칭해야 하며, 김일성 수상과 같이 예우 문구를 금지하였고 봉화나 인공기 달은 것, 반란군 혹은 인민군 동정 금지, ‘동족상잔’ 문구 사용금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불과 몇 달 사이에 1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금지 및 지침조항과 동시에 정부는 출판물에 대한 법안 제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시도는 1948년 ‘신문지 기타 정기간행물 법안’이 시작이었으며, 이후 광무신문지법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출판물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언론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전쟁 중에 비상계엄령을 통한 「간행물·방송·연극·영화 등에 대한 조치」만 공포할 수 있었다. 이 법령은 군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시행하는 것으로, 언론이 군보도과의 의견을 대표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을 통해 정부는 군사 관련 오보로 악용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출판물단속법안’을 발의하여 언론통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언론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1950년대에 정기간행물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그동안 언론인 탄압에 적용되었던 「광무신문지법」의 폐지가 있다. 이 법안의 폐지는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되어 왔으나 결정적으로 ‘동아일보 필화사건(1951.11)’<sup>36)</sup>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군정법령 88호는 군정법령 136호로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에서 「신문지 기타 정기간행물허가」에 관련한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지하고 담당 부서를 공보부로 정한다는 것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군정법령 136호는 1961년 「외국정기간행물 국내 배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며 대체된다.

1950년대 출판법은 출판물들이 1960년대에 와서 등록제가 부활하기 전까지 허가제를 따랐고, 이전 법률들이 소급되어 함께 적용되었다. 또한, 언론탄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출판물법의 제정 시도들이 있었으나 언론계의 투쟁으로 인해 번번이 무마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법안이 발의되고 폐지되던 시기가 전쟁 중이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전쟁 중에도 언론, 출판물의 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종전 후에는 더욱더 반공주의와 독재가 강화되었을 1957년에도 법안 발의를 취소시켰다는 점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34) 「민주일보」(1948. 09. 24). 「言論擁護를爲하여 言論協會蹴起 政府當路에 提議文通達」.

35) 국회 회의록 「제1대국회 제2회 제31차 국회본회의」(1949년 02월 15일).

36) 「동아일보」(1952. 02. 27). 「本報筆禍 事件第一回公判」.

## 2.2 1950년대 잡지 출판

1950년대 잡지 출판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전란 중에도 잡지가 창간되었다는 것과 다양한 분야의 잡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990,96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남한 총 피해액은 410,589,759,000환(약 410억원)에 달하였다.<sup>37)</sup> 이는 1953년도 국민소득이 357,000,000,000환(약 357억원)<sup>38)</sup>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출판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출판계는 아무런 대비없이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는 다양한 잡지들이 등장하며 잡지문화를 형성해갔다. <표 2>와 <표 3>은 한국잡지총람에 목록과 가천박물관 소장 목록을 취합하여 연도별로 발행된 잡지 수와 주제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전체종수는 가천박물관 자료와 잡지총람 수록 자료 중 중복자료를 제외한 것이다.

<표 2> 1950년대 잡지 창간호 현황

연도	가천박물관	잡지총람	전체종수
1950	3	28	30
1951	7	15	25
1952	19	30	41
1953	17	36	48
1954	36	38	65
1955	56	33	77
1956	65	93	137
1957	47	85	118
1958	69	115	159
1959	61	127	170
총합계	380	600	870

<표 3>의 잡지 주제는 가천박물관 자료로만 분석한 것이며, 잡지코드는 한국잡지총람(1994)에 수록된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2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해제 고시』(2012. 8. 3)’가 있기 전까지 법률 제7655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2005. 8. 4)에 의거하여 ‘한국잡지협회’가 등록관청의 역할을 하였고, 1994년판 『한국잡지협회』에서 처음 잡지구분별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37)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통계연감 『6·25사변 종합 총피해』 [cited 2017.06.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131053&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131053&conn_path=I2)

38)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통계연감 『국민소득 추계』 [cited 2017.06.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42506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425062&conn_path=I2)

<표 3> 1950년대 잡지 창간호의 주제

순위	잡지구분별코드	종수
1	문학	48
2	교육	47
3	학술	40
4	법률일반	23
5	기독교	19
6	교양	17
7	농산	11
8	사회일반	11
9	희보	11
10	학습정보	10
⋮	⋮	⋮
73		
합계		380

<표 4> 전쟁기간(1950-1953)에 창간된 잡지 주제 분야

순위	잡지구분별코드	종수
1	교육	6
2	문학	5
3	사회일반	4
4	국방	3
5	학술	3
6	교육연구	2
7	사상	2
8	정치일반	2
9	학습정보	2
10	가정	1
⋮	⋮	⋮
26		
합계		46

<표 2>와 <표 3>을 통해 1950년대 전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잡지가 등장하였고 <표 4>를 통해 전쟁 중에도 창간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당시 잡지 출판은 잡지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시기였는데 당시 신문기사<sup>40)</sup>를 보면 1950년대는 학생지, 대중지, 여성지, 문예지,

39) 전체 잡지 수를 확인할 수 없어 표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1957년 출판연감 통계(1955년 11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당시 정기간행물 통계에서 일간, 통신을 제외한 수치는 주간 119종, 월간 225종, 기타 64종으로 총 408종에 달한다. 주간에는 주간신문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월간만으로도 225종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잡지들의 발간이 활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40) 「동아일보」(1954.07.18) 「定期刊行物の 位置」.

종합지가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잡지들의 활동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1950년대에 등장한 다양한 잡지들은 교양, 학술, 오락, 매체의 기능을 하였고 종류별로 대표적인 잡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잡지의 구분은 한국잡지협회의 잡지총람(1994)의 잡지구분별코드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1950년대의 잡지는 크게 종합지, 여성지, 아동청소년지, 교육·어학, 문학·예술, 종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기술과학, 대중오락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종합지와 대중지(대중오락)는 국내의 정치상황의 동향에서부터 사회문화, 시사, 일상 풍속까지를 망라한 내용을 다뤘으며 대표적으로는 「희망」과 「신태양」을 들 수 있다. 「희망」은 전쟁 중 피난지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잡지로 1951년 5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창간되어 10년 동안 발행되었다. 「신태양」은 1952년 8월 대구에서 대중지로 창간되어 1954년부터 본격적인 종합지로 그 내용을 바꾸었다.

여성지는 1950년 1월 1일 경향신문사에서 발행한 「부인경향(婦人京鄕)」을 시작으로 11종<sup>41)</sup>의 여성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여성지들은 여성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성’과 ‘모성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시작되며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 여성들을 가정으로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아동청소년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지의 대표적인 잡지로는 1952년 창간된 「새벗」을, 청소년지로는 「학원」을 들 수 있다. 아동청소년지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문예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교양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학생들의 교양지로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학원세대」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문예지 역시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 전쟁 중에 창간된 문예지로는 「신조」, 「문화세계」 등이 있다. 피난으로 인해 한 지역에 저명한 작가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는 양질의 문예지를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는 지식인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고 문학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문화적·

洛東江 以南까지 밀리고 물려다닌 戰爭 四年을 그저 싸우고만 지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文化에의 걸음걸이를 멈추거나 쉬지는 않았다는 證左가 여러 가지 있다. …(중략)… 그 중에도 가장 놀라운 일은 “學園”이라는 中學生雜지가 十萬을 바라보는 大部數를 發行하고 있는 事實이다. …(중략)… 戰爭 中에 피난지에서 “希望”, “新太陽”이 發刊되어 今日 大新聞의 發刊部數를 凌駕하는 大部數를 發行하고 있음은 또한 놀라운 事實이라 할 것이다. …(중략)… 女性雜誌로 “女性界”와 “現代女性”이 나오더니 “現代女性”의 獨佔場이 되었으나 內容에 있어서는 女性的 敎養向上을 指向하느니보다는 더 通俗性을 가지기 위하여 登場한 “話”와 택할 바가 없으니 그러면 婦人雜誌는 成算이 없느냐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고, 婦人은 雜誌를 읽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중략)… “思想界”가 純學術雜誌로 收支를 度外視하고 꾸준히 發간하는 것이든지 “現代公論”이 綜合雜誌로 反共戰線의 前초를 擔當하려는 것이든지 모두 나라의 文化를 向上하고 民族의 敎養을 높이고 넓히려는 거룩한 精神에서 出發하는 일일 것이다. …(중략)… 前에는 그 나라의 重量은 그 나라에 入國할 때에 稅關吏가 買收에 應하는 應하지 않느냐는 것과 旅館이 깨끗한가 淸한가로 決定할 수 있다고 하였고, 近間에는 그 나라의 刊行物의 活潑與 否로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定期刊行物의 活潑性은 자랑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眞正 多數國民의 共感을 얻을 수 있는 呼息을 같이 할 수 있는 經國의 言論이 殆無함은 寥寥의 感을 누구나 禁치 못할 것이다.

41)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7집(2013), 654-682. 신혜수의 목록 24종 중 교지, 종합지, 학술지 등을 제외하고 여성지는 총 11종이다.

지적 풍토가 잡지 발행의 자극제였다.<sup>42)</sup> 이러한 활동들은 전쟁 중에 창간된 잡지들은 전쟁이테올로기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였고, 문학인들은 전쟁을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sup>43)</sup>

한편 1950년대에는 종교지 또한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기독교단체에서 발행한 잡지들이 두드러졌다. 그 원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군정시기에 개신교는 반공 입장을 취하여 미군정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승만 역시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편향적인 기독교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sup>44)</sup> 기독교단체들은 종교중심의 종교지 뿐 만 아니라 여성지, 아동지들도 발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지는 「기독교가정」(「새가정」 전신), 아동지로는 앞서 언급한 「새벗」이 있다. 이러한 잡지들은 종교와 주제를 결합하여 더욱 친숙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반공적 기사들을 종종 실어 국가와 같은 노선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어학, 인문, 사회, 자연, 기술, 과학지들도 등장한다. 1950년대는 많은 대학이 설립되면서 학문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잡지 역시 그 역사를 같이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많은 대학들은 학술지나 문예지 성격의 교지들을 발간하였고 학술단체들 역시 학술지들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전쟁기간에는 대학들 역시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1951년에는 전시연합대학이 부산에 설치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각 대학들은 독자적으로 부산에 대학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문교부는 군인신분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연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편의상 여러 학과들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51년 12월 24일 보도 기준으로 부산에는 4,268명, 대전은 377명, 전북 1,283명, 광주는 527명으로 총 6,455명의 학생들이 모여 교육을 받게 되었다.<sup>45)</sup>

1950년대는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출판물의 수가 증가하는 분기점이었고, 잡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50년대의 잡지는 단순히 양적인 팽창 뿐 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잡지 종류의 세분화라는 잡지사의 경영 전략과 전문적이며 언론적인 잡지의 특성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이다.<sup>46)</sup> 또한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여 폐허더미와 혼란을 안겨준 전쟁은 오히려 잡지를 대중매체, 학습서적, 오락수단의 역할로서 유일한 읽을거리로 만들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란 중에도 피란지에서 출판활동을 이어나갔던 출판 및 지식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잡지문화의 명맥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42) 정진석, “근현대 잡지 연구의 회고와 전망 - 개화 계몽 항일민주화의 시련속에서,” 『열상고전연구회 학술발표회』 (2016.12.17.), 1-7.

43) 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文學研究』 40집(2013.10), 431-458.

44) 권동우,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화와 신종교 - 공인교 제도와 영서운동, 그리고 신종교의 대응 -,” 『신종교연구』 제28집(2013. 4), 113-115.

45) 『동아일보』 (1951. 12. 24). 『六四五五名 戰時聯合大學 學生登錄總數』.

46) 전영균, 『韓國出版論 : 出版, 雜誌, 教科書, 著作權 研究』 (서울: 大光文化社, 1989).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서울: 문예출판사, 2015).

정진석, “잡지변천사,” 『관훈저널』 제70집(1998. 9), 51-77.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집(2010. 10), 397-454.

### 3. 1950년대 잡지에 담긴 반공담론

#### 3.1 판권지 속에 담긴 반공 요소

어떠한 출판물이든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권사항이 필수적이다. 판권지란 판권기를 담은 지면으로 판권, 판권면, 판권장, 간기면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잡지 출판물에서도 판권지는 서지사항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어정립에 앞서 판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 인쇄가 발명된 직후에는 중세 필사본의 영향을 받아 판권기가 수록된 지면이 등장하지 않았다. 13세기 후반에는 저자명, 도서제목,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이 표시된 요하네스 레지오몬타누스(Johannes Regiomontanus)와 에르하르트 라트돌트(Erhardt Ratdolt)의 『Calendarium』에 최초로 표제지가 등장하였다. 이후 간혹 필사본에서 등장하던 간기면은 인쇄본에는 요한 푸스트(Johann Fust)와 세퍼(Schöffer)의 『시편』에 최초로 등장하였다.<sup>47)</sup> 한편 동양의 경우, 현재 간기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출판물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 심체요절’로 1377년(고려 우왕3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활자 인쇄된 것이다. 고서에서는 판권지 대신 간인기(刊印記)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간기(刊記)와 인기(印記)를 함께 일컫는 것이다. 필사본의 경우에는 서사년, 서사자, 서사장소 등 서사사항을 적은 사기(寫記)로 표현하기도 한다.<sup>48)</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권지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며 그 용어 사용에 대한 이견도 있다. 판권지에 관한 용어는 ‘판권지’ 용어 사용을 권장하는 견해와<sup>49)</sup> 판권과 용어가 혼동이 되며 한국 고서의 명칭을 따라 판권지를 ‘간기면’으로 사용하자는 견해<sup>50)</sup>도 존재한다. 그러나 간기는 문헌정보학용어 사전에서는 고서에만 해당하는 용어로 한정되어 있고 서지학 관련 서적에서도 고서의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권지가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판권지란 권말, 표제지 이면에 발행사항과 인쇄사항이 기재된 지면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시대적 배경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50년대 한국사회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남한 정부의 체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반대파를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배척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공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사회·문화적으로까지 침투하도록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정치적 이념 하에 ‘반공문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반공문화’란 일반적인 생활양식에서 반공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을 말한다.<sup>51)</sup> 즉, 반공문화라는 것은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활양식에 제약을

47) 이희재, 『서지학신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243-245.

48)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2), 588-589.

49) 이명규, “우리나라 도서 판권기 기술요소 변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집(2010. 3),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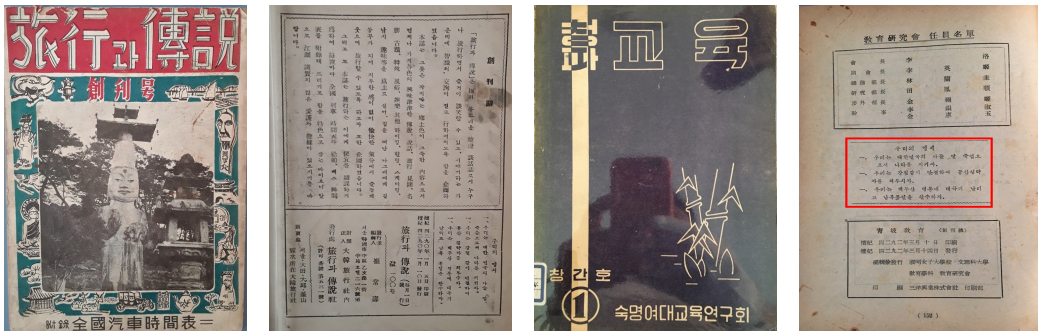
50) 열린책들편집부, 『열린책들 편집매뉴얼2014』 (과주: 열린책들, 2014), 314.

주게 되는데 교육과 문화 활동에도 예외는 없었다. 1950년대 당시 주된 교육, 언론, 문화 향유의 도구였던 출판물들은 검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전후의 많은 출판물에는 ‘우리의 맹세’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의 맹세’는 출판물의 내용과 관계없이 들어가 있는 반공의식의 함양 도구로 사용되어 반공 확산을 위한 ‘뼈라’의 변종<sup>52)</sup>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맹세’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우리의 맹세’는 주로 판권지에 많이 나타나며 일부 잡지들은 표제지에 나타나기도 한다. 잡지들에 나타난 사례는 <그림 1>과 같다.

<표 5> 우리의 맹세

<p>우리의 맹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li> <li>2. 우리는 강철 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시자.</li> <li>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은 완수하자.</li> </ol>
---



<그림 1> ‘우리의 맹세’가 나타나는 잡지의 모습<sup>53)</sup>

‘우리의 맹세’는 1949년 7월 문교부가 제정한 맹세문으로 교과서에는 물론이고 모든 서적에 반드시 인쇄해야 하는 문구였다. 이 맹세문은 출판물 뿐 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도 복창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암기해야 했으며 그 사례는 동아일보<sup>54)</sup>기사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기사는 4·19 혁명이 후 ‘우리의 맹세’ 필수 삽입이 폐지된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폐지되기 직전까지 ‘우리의 맹세’ 수록에 대한 정부의 강요를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51) 주철희,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 형성과 그 의미 -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59집(2016. 5), 19.  
 52)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제15집(2005. 8), 65.  
 53) (좌) 여행과전설사, 『여행과 전설』 제1집(1957.01.01.); 창간사면에 판권지와 ‘우리의 맹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우) 숙명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육학과 교육연구회, 『청과교육』 제1집(1959.03.14); 판권지에 ‘우리의 맹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54) 『동아일보』, 1953.06.26. 『衝天하는 民族의 高喊』.  
 55) 『경향신문』, 1960.09.13. 『없어지는 ‘죽음의 盟誓』』.

문교부는 마치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같은 “우리의 맹세”를 책자에 사용치 않도록 결정하였다. **이정권(李政權)에서 국민들에게 이 맹세를 강요해왔었으며 보통간행물에는 반드시 이 “맹세”가 삽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취소 또는 입건(立件)하여 저자 및 출판사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왔다.** 문교부는 「책자」에 그림과 같이 따라야 하는 이 「맹세」는 「이정권」이 불법으로 강요한 행정조치라고 보고 출판사 등록 시 반드시 기입(記入) 서약케 되어 있는 “우리의 맹세”를 없애도록 하였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는 이 맹세를 백성들에게 강요하여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하였다.

한편 문교부는 「四월혁명」 이래 이 “맹세”를 「책자」에 삽입치 말게 해달라는 항의문을 많이 받아왔다고 한다. 문교부는 보통 간행물취급사무를 공보실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은 후 지금까지 그대로 행정사무를 해왔었다.

「이정권」하에 발행된 「책자」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맹세”가 기입되어야 했으며 기입되었었다.

<그림 2>는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출판사등록증이다. 출판사등록증의 유의사항 3항의 7번 항목에 ‘우리의 맹서’를 기입하도록 했으며, 4항에 ‘전기 각항을 엄수치 않을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四·六版)

**출판사등록증**

출판사이름 \_\_\_\_\_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단기42년   월   일

대표사이름 \_\_\_\_\_

출판사소재지 \_\_\_\_\_

이 출판사는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함

단기42년   월   일

문교부장관

第五篇

權紀四二八

年   月   日

三書式

支教部長官 貴下

法人團 大韓出版文化協會

會長 ○ ○ ○

---

登錄證裏面 (四·六版)

유의 사항

- 一. 출판사의 주소 및 명칭의 변경은 이물 지체 없이 제출할것. (등록증 및 소저지 약도, 법인제일때에는 경관 및 등기사본을 첨부할것)
- 二. 출판물은 늦어도 발행일 삼일전까지는 남문을 엄수할것. (제관, 중판인 경우도 같은)
- 三. 출판물에는 다음 사항을 경시할 것.
  1. 저자(또는 번역자)명
  2. 발행자 주소 설명
  3. 인쇄자 주소 설명
  4. 발행소 및 인쇄소명
  5. 출판사 등록 년월일 및 번호
  6. 평가
  7. 우리의 맹서
- 四. 전기 각항을 엄수치 않을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할 것.

<그림 2> 출판사등록증<sup>56)</sup>

56) 이한국, 『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연감사, 1957), 399.

‘우리의 맹세’는 주로 판권지에 수록<sup>57)</sup>되었는데, 판권지는 출판물의 모든 서지사항을 담고 있어 그 출판물의 성격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면이므로 그 자료의 성격을 반공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물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맹세’ 수록여부가 가장 간단한 검열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반공주의를 강압적으로 강요하여 모든 출판물에 ‘우리의 맹세’가 수록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당시 잡지 출판물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맹세’가 기입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표 6>은 가천박물관 소장 1950년대 창간호 잡지 380종 중 판권지에 ‘우리의 맹세’가 나타난 잡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 6> 판권지에 ‘우리의 맹세’가 나타난 잡지 현황

연도	전체 잡지수	우리의 맹세		
		있음	정부간행물 <sup>58)</sup>	비매품
1950년	3	0	0	0
1951년	7	0	0	0
1952년	19	0	0	0
1953년	17	1	0	0
1954년	36	6	0	2
1955년	56	10	1	4
1956년	65	7	0	2
1957년	47	12	1	5
1958년	69	20	0	8
1959년	61	18	1	3
합계	380	74	3	24

판권지에 ‘우리의 맹세’가 수록된 잡지를 분석한 결과 총 74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환도 이후 국가재건사업이 활발해지는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매품의 잡지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업성, 공익성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잡지들에 반공의 요소를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체 잡지들 중 약 19%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치이다. 통념적으로 반공적인 요소들이 만연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반공요소를 담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반공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행물 27종 중 3종<sup>59)</sup>만이 ‘우리의 맹세’를 수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물조사를

57) 가천박물관 소장 자료 380종 중 1건(『여행과 전설』 제1집(1957.01.01.))만이 창간사면에 수록되었다.

58) 가천박물관 소장 자료 380종 중 정부간행물은 총 27종이다. 정부간행물 기관으로는 문교부, 내무부, 농림부, 재무부, 보건부, 사회부, 철도경찰본대, 해군본부정군감실,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서울시, 부산시이다.

59)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보』 제1집(1955. 06. 30), 문교부, 『농촌문예독본』 제1집(1957. 11. 25), 보건사회부, 『사회사업』 제1집(1959. 12. 31).

실시한 가천박물관 소장 자료 중에는 1960년대 창간호 잡지까지도 ‘우리의 맹세’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60)</sup> 1960년대에는 5건 밖에 되지 않지만 폐지 기사 이후 10년 동안 ‘우리의 맹세’가 존속했다는 점은 반공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맹세’의 일관성 없는 수록 양상은 정부의 노력이 대중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고 또한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관리도 철저히 시행되지는 못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3.2 창간사 속에 담긴 반공 요소

창간사란 출판물을 발간하기 전에 그 출판물의 취지·목적·방향 등을 언급하고 있는 인사말을 말한다. 또한 창간사는 출판물의 성격 뿐 만 아니라 발간 주체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창간사란 당대의 현실과 잡지를 만든 당대 지식인·출판인·문화인들의 정신과 말이 담겨 있으며 때문에 잡지의 창간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참여적 지성의 전통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1)</sup>

대부분 잡지의 집필진들은 지식인들이며 지식인들은 암울한 세태를 비판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창간사 속에 담긴 어휘, 문구 등은 당시 시대상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시대상황에 대한 지식인들의 태도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창간사를 수록하고 있는 잡지들을 대상으로 창간사에 반공적인 문구 있는 잡지들을 분석하고 사용되는 어휘를 통해 반공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조를 ‘반공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2)</sup> 이 정의를 따르면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본문에 반공의 대상 즉, ‘공산당’, ‘빨갱이’, ‘적구(赤狗)’ 등이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반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창간사로 제한하였다. 즉, ‘민주진영’, ‘민주주의’와 같은 어휘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조들이나 이 단어들만 단독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공어휘가 포함된 창간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반공 키워드 역시 ‘민주진영’, ‘민주주의’와 같은 반대 개념의 어휘들은 제외하고 직접적인 반공어휘와 관련 있는 어휘들만 선정하였다. 즉, ‘서울침입(주체가 공산당이기 때문)’, ‘철의 장막(반공을 포함하는 냉전어휘)’, ‘소련(반공의 대상)’ 등을 선정하였다. 창간사는 가천박물관 소장

6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49-181; 1960년대 창간호 잡지 858종 중 ‘우리의 맹세’가 수록된 잡지는 6종이다; 전주남중, 상고학도호국단, 『기린봉』 제1집(1960. 02. 17), 현대사, 『圖書』 제1집(1960. 04. 01), 새글사, 『時調文學』 제1집(1960. 06. 01), 고우사, 『動學經典』 제1집(1961. 04. 05), 김치선, 『크리스찬봉화』 제1집(1965.01.10.), 이우창, 『法學論集』 제1집(1969. 12. 05).

61) 천정환, 『시대의 말 육망의 문장』 (서울: 마음산책, 2014), 12-13.

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cited 2017.06.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424&cid=46626&categoryId=46626>

잡지 380종 중 149종이 창간사를 수록하고 있었으며 이 중 13종에 반공적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표 7>은 이를 정리한 내용이며 <표 8>은 반공어휘가 포함된 창간사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sup>63)</sup>

<표 7> 창간사 속에 반공어휘 포함 현황

연도	전체 잡지 수	창간사			
		있음	반공어휘 포함 잡지 수	우리의 맹세	정부간행물
1950년	3	2	1	0	0
1951년	7	3	1	0	0
1952년	19	8	1	0	0
1953년	17	5	1	0	0
1954년	36	6	0	0	0
1955년	56	16	0	0	0
1956년	65	25	1	0	0
1957년	47	22	3	0	0
1958년	69	30	1	0	0
1959년	61	32	4	1	1
합계	380	149	13	1	1

<표 8> 반공어휘가 포함된 창간사

잡지명	창간사 요약
梅苑	창간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학업장려 및 독려이다. 다른 잡지들과 유사하게 반공의 내용은 당시의 배경을 언급하기 위해 기술되고 있는데, 전쟁 직전이라 공산도배들이 자멸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虎技	육군병기학교의 교지로 창간사 서론에 반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군인으로서 장도(壯途)를 축복하고, 절개를 투지를 가지라는 사기진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벗	「새벗」은 창간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반공내용을 담고 있다. 창간사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 잡지가 사라진 상황이 안타까워 잡지를 발간하며, 어린이 독자들에게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文化春秋	「文化春秋」는 국민 대중을 문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국가 총력을 고양시키는 방법이라고 언급하였고, 오늘날 필요한 잡지는 문화지와 오락지를 적절히 섞은 잡지로 「文化春秋」지가 그러한 잡지가 되겠다는 발간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의 실태와 방향을 대중에서 전파하겠다는 사명을 밝히면서 그 예시로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고 하며 창간 사명에 반공을 명시하고 있다.
新世界	「新世界」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전 분야를 다루는 월간 종합지로 창간하였다. 「新世界」의 창간사는 서두에 잡지의 성격을 언급 후에 반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공을 국제 정세와 결부시켜 언급하고 있고, 13종의 창간사 중 가장 길게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냉전의 국제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며 이에 「新世界」지가 일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重勞	「重勞」는 노동자들을 위한 잡지로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창간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잡지로 전세계의 노동자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공산도배의 침략을 물리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63) 창간사의 상세 내역은 <부록> 참조.

잡지명	창간사 요약
高風	「高風」은 교지로 창간사에 대학의 사명과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대학의 사명과 함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가장(假裝)된 전체주의의 독재주의를 배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藥大學報	「藥大學報」는 창간사 첫머리에 창간당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공산당을 적구로 표현하며 반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藥大學報」는 전반적으로 본지 창간의 축하, 학생들의 학업독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反共	「反共」지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창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현 시점에서 반공의 기치를 공고히 하는 잡지가 없고, 연공 용공분자들이 많으며, 반공을 맥카시즘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반공」지는 국민의 반공투지를 일깨워 반공구국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창간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상업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實情	「北韓實情」은 잡지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내용이 반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창간사의 내용에는 공산당의 침략적 야욕을 대비하여 본지를 발간하고 이것이 국민들이 북한 실정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술하고 있다.
如水	「如水」지는 교지로 창간사는 전반적으로 학업독려 및 수산업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공내용은 현 상황이 공산침략이 불식하고 있다는 배경으로 언급되었고 이를 학업에 집중하여 민족문화에 공헌하자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文學	「文學」은 창간 당시 배경에 반공 내용을 언급하였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은 타자에 의한 사회발전과 급속도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자립적인 근대가 없음을 언급하였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단은 유명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젊은 문학가들의 자리가 없어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文學」은 창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社會事業	「社會事業」은 반공의 내용을 창간의 배경으로 언급하였다.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정부가 응급구호책으로 해결했으나, 국가재건 사업이 활발해지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계획과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 「社會事業」 창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

창간사에 포함된 반공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는 共產(8건), 反共(6건), 傀儡(5건), 共產徒輩(4건), 共產主義(3건), 中共(2건), ‘鐵의 帳幕’(2건)순이다. 反共의 경우에는 「反共」잡지에서만 등장한 건수이다. 또한 「신세계」, 「반공」, 「북한실정」을 제외한 나머지 10종의 창간사는 반공에 대한 내용은 창간배경, 창간 시대상을 언급하기 위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13종 중 단 1종의 정부간행물 「사회사업」만이 창간사에서 반공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창간사 역시 앞서 분석하였던 ‘우리의 맹세’의 수록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창간사의 특성상 잡지의 창간 취지를 언급하지만 반공규제가 엄격하였던 시기에 반공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저조하였다는 점은 창간사의 집필진들 즉, 지식인 집단은 반공에 대해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원인으로는 당시 대중들이 반반공의 노선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둡고 철학적인 소재보다는 즉흥적이고 흥미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고 작가들이 자기검열에 대한 회의감으로 반공예술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와도 부합된다.<sup>64)</sup>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상관없이 정부의 반공문화 주입의도는 기존의 반공극, 영화 등과 같이 잡지 분야에서도 지식인과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64) 오영미, “1950년대 개인담론의 대두와 반공극의 위상,” 『한국예술극연구』 42집(2013. 12), 191.

#### 4. 결 론

지금까지 1950년대의 잡지 출판의 상황과 이들 잡지에 나타난 반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매우 적은 수의 잡지만이 반공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었고 대부분의 잡지들의 창간사에는 개별적인 잡지의 창간 취지만을 서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1950년대 잡지 창간호의 판권지와 창간사 속에 담긴 반공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판권지 분석을 통해 1950년대의 출판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정부의 언론 및 출판활동에 대한 제약 및 탄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수차례 정기간행물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며, 제정했던 출판법에는 모든 출판물에 ‘우리의 맹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천박물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문구가 기입된 잡지는 전체 380종 중 74종에 불과하였고 약 81%가 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정기간행물 27종 중 단 1종만이 ‘우리의 맹세’를 기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대외적으로는 반공을 강요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철저히 관리되기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에 따라 대중 역시 반공담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판권지에서는 1950년대 지식인들의 철학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창간사 속에 담긴 어휘, 문구 등은 당시 시대상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시대상황에 대한 지식인들의 태도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창간사의 특성과 결부하여 반공에 대한 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창간사가 있는 잡지 147종 중 13종만이 반공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맹세’가 있다고 해서 창간사에 반공적 내용을 담지 않았고 창간사에 반공적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판권지에 ‘우리의 맹세’가 수록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공적 어휘를 수록한 13종의 창간사의 대부분 각 잡지창간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창간사에 목적과 방향이 반공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는 잡지는 「신세계」, 「반공」, 「북한실정」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지식인들이 반공에 대한 동조가 저조하였음을 보여준다. 반공적 어휘를 포함한 13종의 창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창간사들은 잡지의 목적, 방향을 주로 언급하고 민주주의,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이 ‘반공=민주주의’인 것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창작이나 지적 탐구 영역에서 반공을 주장하거나 반공검열을 통한 저급한 내용을 출간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1950년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공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지만 국내에는 이미 민주주의 환경이 싹트고 있었고 지식인들의 관심 역시 반공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판권지와 창간사 두 가지 서지적 측면에서 1950년대 잡지 출판문화 및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확인된 1950년대 잡지 창간호의 목록은 870종이었으나 일부 자료인 가천박물관

관 자료 소장 자료 380종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1950년대의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지 분석 대상인 가천박물관 자료의 연도별 발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자료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므로 이 연구가 1950년대 잡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논문 ]

- 권동우.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화와 신종교 - 공인교 제도와 영서운동, 그리고 신종교의 대응 -.” 『신종교연구』 제28집(2013. 4). 113-115.
- 김영희. “제1공화국 초기 이승만정부 공보선전활동의 성격.” 『한국어논학보』 제54권(2010. 6). 326-348.
- 김옥란. “오영진과 반공·아시아·미국- 이승만 전기극 <청년>·<풍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2012. 8). 5-55.
- 김옥선. “『전선문학』에 나타난 감정 정치.” 『인문학논총』 제25집(2011. 2). 103-129.
- 김종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 漢城圖書株式會社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35집(2009. 5). 247-272.
- 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文學研究』 40집(2013. 10). 431-458.
- 김한식. “김동리 순수문학론의 세 층위 - 반공주의와 순수문학의 상동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5집(2005. 8). 11-47.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3집(2007. 12). 378-416.
-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 『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19집(2013. 12). 83-116.
- 마이클 김. “일제 강점기 출판계의 변화와 성장 - 고전소설에서 근대문학의 생산 시기까지.” 『한국사 시민강좌』 제37집(2005. 8). 191-204.
- 박용상. “한국의 언론법사 미군정시의 언론규제.” 『신문연구』 36집(1983. 12). 150-177.
- 박찬수. “1920-30년대 고려인 출판문화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1집(2015. 11). 91-109.
- 서정우. “대중지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 『계간 언론중재』 (1986년 여름호). [cited 2017.06.05.] [http://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13&idx=508&sub\\_idx=3800&m=read&f=&s=](http://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13&idx=508&sub_idx=3800&m=read&f=&s=).
- 선안나. “1950년대 아동문학과 반공주의 - 아동잡지를 중심으로 -.” 『동악어문학』 제46집(2006. 2).

325-355.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문화예술분야 활용기반 구축 연구』 (서울: 수립문화재단, 2016). 1-229.
-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집(2013. 6). 654-682.
- 안미경. “일제시대 천자문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12). 291-323.
- 오영미. “1950년대 개인담론의 대두와 반공극의 위상.”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2013. 12). 187-217.
- 이명규. “우리나라 도서 판권기 기술요소 변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집(2010. 3). 329-349.
- 이명규, 리옥금. “재중 조선인의 조선문(한글) 잡지 발간 상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집(2007. 3). 195-210.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집(2010. 10). 397-454.
-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제15집(2005. 8). 49-98.
- 이춘실, 이해은, 허지수. “계량정보학적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근현대 잡지 창간호의 모습 - 가천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제55집(2017. 2). 43-72.
- 이하나. “반공주의 감성기획, ‘반공영화’의 딜레마 - 1950~60년대 ‘반공영화’ 논쟁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제159집(2012. 9). 53-94.
- 임성규.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 비판 - 1950년대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제32집(2008). 369-391.
- 장수경. “1950년대 『학원』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계몽의 이중성.”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2009. 11). 435-452.
- 정경은. “195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계몽과 수치심의 관계 고찰 - 잡지 『여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2집(2012. 9). 287-310.
- 정진석. “근현대 잡지 연구의 회고와 전망 - 개화 계몽 항일 민주화의 시련속에서.” 『열상고전연구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서울: 열상고전연구회, 2016). 1-7.
- 정진석. “일제 강점기의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 - 1920~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출판통계를 중심으로.” 『근대서지』 제6집(2012. 12). 23-53.
- 정진석. “잡지변천사.” 『관훈저널』 제70집(1998. 9). 51-77.
- 조건.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조직과 반공 교육정책.” 『역사와 교육』 제22집(2016. 4). 155-190.
- 주철희.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 형성과 그 의미 -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59집(2016. 5). 3-40.

[ 웹자원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cate=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 신문기사 ]

- 「경향신문」 (1957. 02. 13). 「所謂 出版物團束法案의 再蠢動」.
- 「경향신문」 (1960. 09. 13). 「없어지는 죽음의 盟誓」.
- 「경향신문」 (1960. 11. 14). 「外國定期刊行物配布案議決」.
- 「동아일보」 (1947. 03. 28). 「刊行物 新聞雜誌에 暴風襲來」.
- 「동아일보」 (1948. 10. 29). 「新聞紙法再考慮 三團體共同聲明」.
- 「동아일보」 (1950. 02. 04). 「新聞紙法案提出 光武11年法全的改廢」.
- 「동아일보」 (1951. 11. 24). 「出版物法에 對한 異見」.
- 「동아일보」 (1952. 02. 27). 「本報筆禍 事件第一回公判」.
- 「동아일보」 (1953. 06. 26). 「衝天하는 民族의 高喊」.
- 「동아일보」 (1954. 07. 18). 「定期刊行物의 位置」.
- 「동아일보」 (1955. 01. 23). 「起草完了된 出版法全文」.
- 「동아일보」 (1955. 08. 12). 「宣傳價値와 映畫藝術性/反共映畫批判의 是非/특히 『피아골』을 中心하여」.
- 「민주일보」 (1948. 09. 24). 「言論擁護를爲하여 言論協會蹶起 政府當路에 提議文通達」.

#### [ 단행본 ]

-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4.
-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서울: 한국학연구소, 1999.
- 김근수. 「한국잡지연표」. 서울: 한국학연구소, 1999.
-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0.
- 서유리. 「시대의 얼굴: 잡지 표지로 보는 근대」. 서울: 소명출판, 2016.
- 안춘근. 「한국출판문화사대요」. 서울: 청량출판, 1987.
- 열린책들편집부. 「열린책들 편집매뉴얼2014」. 과주: 열린책들, 2014.
-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서울: 소명출판, 2009.
-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서울: 문예출판사, 2015.
- 이한국. 「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연감사, 1957.
- 이희재. 「서지학신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 진영균. 「韓國出版論: 出版, 雜誌, 教科書, 著作權 研究」. 서울: 大光文化社, 1989.

- 정진석. 『한국잡지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서울: 마음산책, 2014.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3』. 서울: 현암사, 2004.  
최동호, 최유찬.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연구 1-4』. 서울: 서정시학, 2012.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국잡지협회. 『한국 잡지 총람: 韓國 雜誌 70年史』. 서울: 한국잡지협회, 1973.

[ 연속간행물 ]

- 고우사. 『動學經典』 제1집(1961. 04. 05).  
경제계. 『經濟界』 (1957. 12. 01).  
김치선. 『크리스찬봉화』 제1집(1965. 01. 10).  
대한민국예술원. 『藝術院報』 제1집(1955. 06. 30).  
문교부. 『農村文藝讀本』 제1집(1957. 11. 25).  
보건사회부. 『社會事業』 제1집(1959. 12. 31).  
새글사. 『時調文學』 제1집(1960. 06. 01).  
숙명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육학과 교육연구회. 『靑坡教育』 제1집(1959. 03. 14).  
심우회. 『審友』 (1954. 04. 10).  
여행과전설사. 『旅行과 傳說』 제1집(1957. 01. 01).  
이우창. 『法學論集』 제1집(1969. 12. 05).  
전주남중, 상고학도호국단. 『기린봉』 제1집(1960. 02. 17).  
현대사. 『圖書』 제1집(1960. 04. 01).

<부록> 1950년대 반공어휘가 포함된 잡지 창간호의 창간사 분석

잡지명	창간일자	발행자	발행처	창간사 <sup>65)</sup>	키워드	우리의 맹세	분류
梅苑	1950.05.01	朴銀惠	경기여자중학교	... 그러나 五·十選舉로말미아마 暴風같은 陣痛을 겪은후 民國이 延生하자 國民의 護國愛族의 精神은 날로 두터워가며 友邦 美國의 各국한 援助로 經濟的復活도 漸次 生 <sup>o</sup> 하여지는 <u>同時에 最後發惡을하던 共產徒輩들도 이미 自滅의 段階에 이르러지때</u> 民國의 地盤은 友好列邦의 承認과더부러 不動의 態勢를 갖추고 있습니다. ...	共產徒輩	무	교지
虎技	1951.05.20	-	육군병기학교 제5기병기서관 후보생호기회	... 世界 自由民의 <u>共敵인 共產徒輩가 不法의 南侵을</u> 해온지도 벌써 一年이 되려한다. ...	共敵/共產徒輩/ '不法의 南侵'	무	교지
새벗	1952.01.01	金春培	새벗사	... 그런데 어찌 뜻했겠습니까? <u>6·25 공산당의 우리 서울 침입으로해서</u> 우리들의 소중한 애끼고 곱게 곱게 만들어 내려던 여러분 어린이의 잡지는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우리 잡지 뿐이겠습니까?	공산당 서울침입	무	아동지
文化春秋	1953.10.01	李貞根	문화춘추사	... 오늘의 싸우는 韓國文化, 특히 싸우는 民主國家로서의 寒國의 問話는 許多한 問題를 갖고 있다. 民族文化의 宣揚, 外國文化의 攝取, 文化遺產의 傳承, 새로운 傳統의 創造, <u>더욱이 共產主義 思想및 文化에 대한 根本的인 超克, 批判,</u> 그리고 새로운 理念및 體系의 提唱 樹立 擁護 韓國戰爭이 世界의 戰爭史에 있어서 가장 苛烈 ...	共產主義	무	대중지
新世界	1956.02.06	高在禧	창평사	우리는 戰爭狀態以上의 <u>對共의 臨戰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다. 卽, 假裝의 宣傳攻勢와 恫喝의 經濟攻勢 및 許欺의 平和攻勢를 爲 主</u> 로하고 있는 蘇聯의 <u>赤色帝國主義의 侵略의 露骨化는 해가 바뀌고 날이 갈수록 尤甚</u> 해가고 있는 形便이다. ... 이로 말미암아 <u>赤色世界制霸의 野慾</u> 으로써, 侵	對共/假裝의 宣傳攻勢/赤色 帝國主義/鐵의 帳幕/赤色 世界 制霸/蘇聯의 走狗인 北韓 傀儡 集團/'不法 南侵'/共產徒輩/冷戰(Cold War)/共產主義/共產世	무	대중지

65) 창간사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원문의 표기대로 기술하였다.

잡지명	창간일자	발행자	발행처	창간사 <sup>65)</sup>	키워드	우리의 맹세	분류
				<p>略의도는더욱 露骨化할것은 明若見火할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再言할것도 없이 <b>蘇聯의 侵略史가證明</b>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 오늘날 激勵하는 不安한 國際的環境속에서 모든 惡條件을克服하고忍耐하면서, 우리의 自由를剝奪하려는 <b>共產主義國家群과 對共態勢</b>에 있는 것도 그實은 우리의 自由를 擁護하는 까닭이오 ...</p> <p>... 이로 하여금 <b>赤色共產世界의 統一을 意圖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의 世界情勢는 『自由世界』對『共產世界』의 死活과 雌雄을 決하는 歷史的運命에 逢着하고 있는 것이다. ...</b></p> <p>... 共產主義的 國家主義에 基礎가 되는 『맑스·엔겔스』의 共產主義 基本原則에 依한 思想的 武裝을 憑藉하여 가지고, 世界赤色 統一의 目的을 向하여, 宣傳과 口號로는 萬國의 勞動者, 農民이여 團結하라! 하면서 ...</p>	<p>界/맑스·엔겔스/反蘇聯聯盟機關/中共/社會主義/聯聯邦主義/赤色全體主義'</p>		
重勞	1957.01.31	李俊洙	중로사	<p>... 世界第二次大戰以後 <b>鐵의帳幕內에서</b> 自由와 平和와 鬻을위하여 高貴한 生命까지저바리고 抗爭하고있는 數千萬의 勤勞者가 있다는 事實等を 恒常몸에지니고 前進하여야할것입니다. 客年十月에 自由洪牙利勞動者들의 赤手空拳으로써 抗爭은 紙上을通하여 우리들 은알고도 남음이있습니다. 目前에도 自由와平和와鬻을 위하여 싸우는 北韓의우리同志들이 있다는것과 <b>鐵의帳幕內모-든 勞動者는 時時刻刻으로 蜂起하고있습니다. ... 共產徒輩의 侵略을몰리치기위하여 안으로굳게團結하고 廢墟위에선 國土를하루속히 再建합니다. ...</b></p>	<p>'鐵의 帳幕' 共產徒輩'</p>	무	회지
高風	1957.05.22	趙永植	신흥대학교 학도호국단	<p>... 하여간 우리는 <b>假裝된 全體主義와 獨裁主義를 排擊</b>하고 過去數千年間 神權政治와 君主政治</p>	<p>'假裝된 全體主義'</p>	무	학보

잡지명	창간일자	발행자	발행처	창간사 <sup>65)</sup>	키워드	우리의 맹세	분류
				가 우리에게 不適合하였다는 그事實과 史實을 教訓으로 삼아 百姓들에게 福利生活와 文化生活를 榮位할 수 있게 하는 眞正한 民主主義 理念에서 ...			
藥大學報	1957.03.10	申德均	중앙대학교 약학회	<u>六·二五動亂으로 大韓民國이 史上稀有의 艱難을 겪은후 尙今도 赤狗로부터  입을 傷處는 가시지 못하였으나</u> 그러한 混亂中에도 釜山避亂中에 本藥學大學의 發足を보아 中央大學校의 發展의 一部를 擔當하게된것도 於焉滿四年을 ...	赤狗	무	학보
反共	1958.01.01	崔興朝	신문의신문사	軍隊와 警察의 重壓의인 威力을 背景으로 하여 連綿 二十年間 變어 固定된 統治權을 行使하는 政府이면서도 內治, 外交上에  여러 가지 失敗를 거듭하는 가운데 <u>國是인 反共救國面에</u> 있어서도 決코 看過될 수 없는 許多한 盲點을 露呈하고 있는 것이 現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하니 하루에도 數없이 「反共」을 외치건만 爲政者나 國民이 果然 <u>反共氣魄이 솟구치는가를 疑心할 程度로 實質的으로</u> 는 <u>이렇다할 反共事業에 徹底하지 못하다</u> 는 事實입니다. <u>蘇聯이나 中共이나 金日成傀儡는</u> 韓半島와 나아가 全世界를 그鐵鑊로 얹어 軋 凶圖아래 緻密한計劃과 膨大한 人員과 巨額의 資金으로 不撤晝夜하고 이른바 和戰兩面의 浸透攻勢를 敢行해 오는 때에 ...	國是/反共/反共救國/反共氣魄/反共事業/蘇聯/中共/金日成傀儡/反共의 旗幟/聯共 容共分子/共產黨/맥카-시즘/反共一路/國際共產主義	무	대중지
北韓實情	1959.12.01	任百首	북한실정사	... 六·二五戰亂中 <u>滅共戰線에서 祖國을 위해 싸우다 殉國한 戰歿將兵들의 偉勳의 功德인것이</u> 며 우리들은 이러한 先烈의 獻身的 愛國鬪爭을 기리 追慕해야 하겠다. 우리는 이제 八年前的 共產傀儡의 不法侵略으로 인하여 數千萬의 同胞가 皮를 흘렸고 莫大한 財物이 戰火의 祭物로 化한 六·二五 事變을 想起함과 同時	滅共戰線/共產傀儡/不法侵略/侵略者/北韓傀儡/大量密播/赤化/宣傳攻勢/送北/共產主義/對共鬪戰/北韓의 暗黑相/共產主義/滅共戰列	무	대중지

잡지명	창간일자	발행자	발행처	창간사 <sup>65)</sup>	키워드	우리의 맹세	분류
				에 끝내 侵略者를 우리疆土에서 驅逐하지 못하고 北韓同胞들의 解放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不願의 休戰이 成立되고 있다는... 敵은 虎視眈眈 韓國에 대한 再侵企圖와 全世界 赤化를 꾀하고 全世界를 征服 하려는 野慾에서 그들은 一面 軍備擴張 一面平和攻勢를 내거는 欺瞞宣傳術策을 展開시키고 있으며 또한 最近 北韓 傀儡들은 對南間諜의 大量密派와 宣傳攻勢의 強化로 大韓民國의 內部的 攪亂을 企劃하고있는가 하면 國際的인 陰謀에 加擔하여 在日韓國人僑胞의 送北을 劃策하고있는 實情에 비추어 우리는 다시한번 對共鬪戰의 決意가 굳건하며 敵에 대한 警戒을 게을리 할수 없는 것이다. ...			
如水	1959.01.01	河甲玉	대천수산 고등학교	... 과거 三十六年間 倭政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無權利 無經濟力 解弛性 등으로 無能力하게 하지 안했는가? 多幸이도 先烈의 힘으로 國權은 回復하였으나 共產侵略이 不息하고있는 오늘 날 우리는 自覺할지이다. ...	共產侵略	무	교지
文學	1959.10.01	鄭相九	문학사	...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채 해방은 밀물쳤다. 마구 혼란의 도가니요 회오리 바람이었다. 붉은 막난이들은 억만의 죄악을 저질러 놓고 북쪽으로 뺨소니만 치곤 했다. ...	붉은 막난이	유	문예지
社會 事業	1959.12.31	姜鳳秀	보건사회부 중앙사회사업 중사자훈련소	... 八·一五解放의 뒤를이어 海外로부터 歸還한 同胞와 北韓으로부터 越南한 罹災民의 定着이라는 至難한 課業을 解決하기도 전에 이러난 共產傀儡軍의 南侵으로 인한 莫大한 被害는 雪上加霜으로 數많은 民族을 深刻한 生活難에 빠트렸던 것입니다. ...	共產傀儡軍	무	기관지